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금 명 자[†] 권 해 수 이 희 우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 적응 유형과 문화 적응 정체감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 척도를 개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은 하나원 시절을 포함한 보호기간 4개월 동안에는 '동화' 유형, 4개월 이후 1년 동안에는 '분리' 유형, 1년에서 2년 동안에는 '주변화' 유형, 그리고 2년 이후에는 '통합' 유형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문화에 대하여 U형의 적응 정체감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공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은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등 비교적 개별적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에 비하여 '주변화' 적응 유형을 많이 보였는데, 이는 남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탈북 청소년의 적응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이 제한된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 적응 정체감 척도를 개발하여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으며, 이후 탈북 청소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탈북청소년, 문화 적응 과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금 명 자, (100-882)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6동 292-61, 한국청소년상담원
전화 : 02-2253-3436 E-mail : mjkeum@kyci.or.kr

분단 이후 1993년까지는 매년 10명 미만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들어왔으나, 1994년부터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 단위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아동과 청소년 탈북자가 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입국 탈북자의 25%에 해당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나 교육 받고 살다가 남한이라는 매우 이질적인 사회로 들어와 새로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기존의 문화 속에 살다가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문화 적응(acclaculturation) 혹은 문화 변용이라고 한다(여기에서는 문화 적응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문화 적응이란 뚜렷이 다른 두 개의 문화집단 간에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문화적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 적응은 어느 한 쪽 문화만의 일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문화가 서로의 영향을 받아 둘 다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적응과 관련한 개념과 연구는 Berry (1976, 1991, 1998, 2002)의 난민 연구를 통해 체계화되었다.

Berry(1970, 2002)는 두 개의 문화가 접촉되면서 개인이 겪는 문화 적응 과정에서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등 4가지 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구분하는 첫째 조건은 개인이 가진 상속된 문화와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상대적 선호이고, 둘째 조건은 다른 문화적 집단들과 함께 더 큰 사회에 접촉하고 참여하려는 상대적 선호이다. '통합'은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여 문화적 주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정착 사회와도 충분히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화'는 자신의 고유 전통이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

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집단들이 모두 하나의 융합 도가니에서 합쳐지고 섞여져서 새로운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는 외부 세계와 정착 사회 문화간에 연결되는 것이 없는 상태로, 자기 고유 집단의 주체성만을 유지하면서 정착 사회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주변화'는 자신의 고유 집단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착 세계 양쪽과의 관계를 모두 끊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적대적 태도, 소외, 자아정체감 상실 등의 느낌을 가진다.

한편, Atkinson, Morton, 그리고 Sue(1998)는 소수 집단의 정체감 발달 모델(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Model, MID)을 통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문화 적응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정체감 발달 단계를 자신에 대한 태도, 같은 소수집단의 사람에 대한 태도, 다른 소수집단의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주류(다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5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MID 모델에 의하면, 대체로 적응 초기에는 개인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과 문화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하다가 다시 저항과 반작용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었다가 시간이 더 경과되면 합리적이고 선택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반대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적응하기 위하여 높은 호감적 태도를 보이다가 차츰 시간이 경과되면 반작용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다가 점진적으로 합리적 평가와 선택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자신과 소수집단에 대해서는 대체로 점진적 상승이, 주류 집단에 대해서는 단순 선형적 변화가 아닌 U형의 태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Nash와 Dennison (1991)의 연구에서도 이민자들이 이질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혹은 행복척도가 경과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민의 초기와 여러 해 경과 후에는 좋은 평가를 하고, 중간 시기는 부정적 평가를 하는 U 형을 보였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Berry의 문화 적응 유형을 활용하여, 탈북자가 남한 주류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다룬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독고순, 2001; 채정민, 한성렬, 허태균, 김동직, 2002; 이애란, 2003).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대체적으로 동화와 통합의 적응 유형을 보이며, 이러한 적응 유형은 학력과 수입, 시간 경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해가 1999년 이후이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의 역사가 짧다. 하나원이 1999년 개원하면서 하나원 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인 ‘하나둘학교’에서 8주간의 사회 적응 훈련을 하고 그 이후 민간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대안학교와 방과후 학교, 쉼터와 그룹홈 등에서 그들을 지지, 지원하면서 그나마 연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이들이 겪는 적응의 어려움을 드러낸 연구들이다. 박선경(1999)은 탈북 청소년의 학교 생활을 이해하기 위하여 남한에 입국한 지 1년 미만인 초등학생 2명과 중고등학생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대체로 교사와 친구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불안해하는 등의 부정적 적응을 보였고 심지어 대상자 모두가 급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창호(2000)는 탈북한 지 3년 미만의 1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여섯 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에서의

경험→중국 등 제 3국에서의 경험→입국 후 하나원의 사회 적응 교육→거주지에서의 초기 상황과 적응→초기 대응에 따른 인과적 상황 등 다섯 단계의 적응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적응 문제는 크게 외로움과 소외감, 자신감 저하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학교, 가족, 대인관계, 언어 등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부적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2002)은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질적 분석한 결과, 학업의 부진과 학교 적응의 어려움, 교사와의 관계, 진학과 진로 결정, 비정규교육기관에서의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 부모와의 관계 등 6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탈북 청소년이 남한에 본격적으로 입국하고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기간은 불과 3년여 정도이므로, 이들은 양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제한적인 연구 대상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탈북 청소년의 적응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행 연구들이 대체적으로 탈북 청소년 6명에서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대부분 심층 면접과 관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탈북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둘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적응의 어려움을 확인하여 기술하는 연구들이었다. 물론 그들의 어려움을 확인하여 기술하는 기초 연구로서 가치가 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어려움과 적응과정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 과정을 설명하고,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이 겪는 적응 과정을 ‘문화 적응 과정(acculturation)’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성별, 입국 당시 연령, 입국 이후 경과 기관, 교육 형태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탈북 청소년 문화 적응 정체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탈북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 이들의 인구학적 변인 및 다양한 영향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은 성별, 나이, 입국 당시 나이, 입국 후 경과 기간, 교육 형태, 동거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탈북 청소년의 적응 유형을 결정짓는 남한 혹은 북한 문화 적응 정체감 수준은 어떠한가? 그리고 여러 가지 변인들에 따라서 문화 적응 정체감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방 법

피험자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탈북 청소년으로, 일반 중·고교, 탈북청소년 보호시설, 탈북자 후원 민간 단체, 상담실, 그리고 복지관 등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표 2의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유형 분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여러 수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하였다. 연령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 9세에서

24세까지로 학교급 별에 따라 초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9~13세, 중학교에 해당하는 14~16세,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7~19세,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네 개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교육형태는 일반 공교육 기관에 다니는 경우,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하나원의 하나둘학교에 다니는 경우, 그리고 검정고시나 대학 입학에 위해 혼자 공부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기타 등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입국 나이는 남한 입국 당시의 연령으로 학교급 별에 따라 네 개의 수준으로 나누었다. 입국 후 기간은 입국 후 조사를 받고 의무적으로 교육이 주어지는 하나원의 보호 기간 4개월,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나 홀로 생활하는 기간이 1년(4개월~1년 4개월까지를 의미함), 1~2년, 그리고 2년 이상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한편 탈북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에서 체류를 하게 되는데, 제 3국 체류 기간을 1년 이하, 1~3년, 그리고 3년 이상 등 세 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동거 형태는 부모와 형제 등 가족과 함께 사는 형태, 쉼터 등의 보호시설에서 동료 탈북 청소년과 집단으로 사는 형태, 혼자 혹은 친구 몇몇과 사는 형태, 그리고 부모 없이 형제하고 사는 형태 등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상의 인구학적 변인들은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유형과 문화 적응 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되는 변인들이다.

측정 도구

탈북 청소년 문화 적응 정체감 척도

탈북 청소년들의 초기 남한 생활을 문화 적응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 과정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요구되어, 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KAEIS)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Hue-

표 1.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 척도 요인 부하량

문항	내	용	요인 1	요인 2
1	나는 마음으로는 북한사람에 가깝다		-.223	.626
2	내 친한 친구들은 거의 북한사람이다		-2.952E-02	.569
3	나는 나만에서 사용하는 표준말을 하려고 한다		.666	2.390E-02
4	나는 정말 남한사람처럼 변했다		.341	-.207
5	나는 남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		.115	.401
6	나는 남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480	-.359
7	내가 남한 사람이 되어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611	-.133
8	나는 북한 문화가 훌륭하고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205	.482
9	나는 북한 사람들은 만나면 항상 재미있다		-.206	.515
10	나는 주로 남한 노래를 많이 듣거나 부른다		.405	2.360E-02
11	나는 북한 사람들과 있는 것이 편하다		-5.319E-02	.729
12	나는 북한의 전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1.283E-02	.636
13	내 가치와 신념은 남한 사람들과 다르다		9.386E-02	.351
14	나는 북한 사람들에 속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265	.576
15	나는 남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다		.521	-.276
16	사람들이 북한 문화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6.304E-02	.494
17	나는 정말 북한 사람답다		5.431E-03	.720
18	나는 남한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706	6.726E-02
19	나는 북한 사람들과 쉽게 사귀다		.198	.846
20	나는 북한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한다		.228	.647
21	나는 남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781	8.268E-02
22	나는 북한 사람들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128	.656
23	나는 남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즐겁다		.780	-.144
24	나는 남한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한다		.608	-.173
25	내 가치와 신념은 대부분 북한 사람들과 비슷하다		.151	.723
26	나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려한다		.466	.267
27	나는 종종 북한을 다룬 영화나 텔레비전을 본다		6.835E-02	.421
28	나는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303E-02	.603
29	나는 마음으로는 절대 남한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는다		-5.941E-02	.357
30	나는 남한 문화가 좋다고 생각한다		.778	.230
31	나는 남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829	8.633E-02
32	나는 남한 문화의 좋은 면을 더 많이 찾으려고 한다		.716	.121
33	남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나에게서 멋진 일이다		.797	.167
34	나는 남한 사람이라고 자주 생각한다		.719	2.904E-02
35	북한 말을 계속 쓰려고 노력할 것이다		-.107	.484
36	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668	.113
37	나는 북한 노래를 즐겨 듣거나 부른다		.117	.495
38	나는 북한 출신이지만 남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으면 좋겠다		.745	9.905E-02

Sun Ahn(1999)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들의 민족적 정체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KAEIS를 사용한 바 있다.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 척도는 KAEIS의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되 Korea나 Korean은 ‘북한’으로, America나 American은 ‘남한’으로 번역하였다.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정체감 척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는데, 먼저 일선 현장에서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몇 분의 교사들에게 내용 검토를 받아 50개의 문항 중 탈북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문항 8개를 탈락시켰다. 다음으로, 문항 검토를 통해 선정된 42개 문항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내적 타당도와 요인분석에 의해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요인분석의 eigenvalue가 떨어지는 문항은 삭제한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은 총 38개 문항이었다. 한편, 요인분석에서 두 개의 확연한 요인을 찾을 수 있었으며, 요인 1은 남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남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는 ‘남한 문화 적응 정체감’ 20문항이었으며, 요인 2는 북한 문화와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북한 문화 적응 정체감’ 18개 문항이다(표 1 참조). 본 척도의 Cronbach $\alpha = .88$ 이었다.

불안 척도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현숙과 구분용(2001)이 사용했던 청소년용 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Reynold와 Kamphaus(1992)가 제작한 Behavior Assessment Scale for Children(BASC)의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성격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총 186개 문항 중에서 지나친 걱정, 두려움, 과민함, 문제에 압도되고 있다는 느낌을 평가하는 14개 문항들을 선택하여 구성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불안 척도의 Cronbach $\alpha = .87$ 이었다.

우울 척도

우울 역시 신현숙과 구분용(2001)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Reynold와 Kamphaus(1992)가 제작한 BASC의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성격척도에서 13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선택된 문항들은 슬픈 기분, 불행한 느낌, 낙담, 불운하다는 생각을 평가하는 내용들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Cronbach $\alpha = .85$ 이었다.

결 과

탈북 청소년 문화 적응 유형

남한 문화 적응 정체감과 북한 문화 적응 정체감 점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4개의 적응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한 문화 적응 정체감 점수가 높으면서 북한 문화 적응 정체감 점수가 높은 경우 ‘통합’, 남한 문화 적응 정체감 점수는 높지만, 북한 문화 적응 정체감 수준은 낮은 경우 ‘동화’, 남한 문화 적응 정체감 점수는 낮지만 북한 문화 적응 정체감 점수는 높은 경우 ‘분리’, 그리고 남한 문화 적응 정체감 점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북한 문화 적응 정체감 수준도 낮은 경우 ‘주변화’로 분류하였다.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유형의 분포 현황은 표 2에 제시하였으며, 탈북 청소년들은 주로 통합(27.5%), 동화(29.0%) 유형을 보였다.

표 2에 나타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탈북 청소년들은 ‘동화’와 ‘통합’ 유형을, 20세 이상은 ‘분리’ 유형을, 초등학생은 ‘분리’, ‘주변화’ 유형을 보이며, 남자는 ‘동화’를, 여성은 ‘분리’ 유형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입국 연령에 따라서는 0세에서 초등학교 시절까지

표 2. 탈북 청소년 문화 적응 유형 분포 (단위: 명)

		동화형	통합형	분리형	주변화형	전체	χ^2
		20	19	17	14	70	
		(29.0%)	(27.5%)	(24.6%)	(18.9%)	(100.0%)	
연령	9 ~ 13세	1	0	2	3	6	11.42
	14 ~ 16세	5	4	2	3	14	
	17 ~ 19세	9	11	5	4	29	
	20세 이상	5	4	8	4	21	
성별	남	13	10	6	11	40	6.02
	여	7	9	11	3	30	
교육 형태	일반공교육	6	4	6	10	26	17.11*
	대안학교	5	3	6	1	15	
	하나원	5	9	1	1	16	
	기타	4	3	4	2	13	
입국 나이	0 ~ 13세	1	1	2	5	9	12.05
	14 ~ 16세	6	6	3	3	18	
	17 ~ 19세	10	8	7	3	28	
	20세 이상	3	4	5	3	15	
입국 후 경과 기간	4개월 미만	6	10	1	2	19	19.45*
	4 ~ 16개월	5	2	8	5	20	
	17 ~ 28개월	5	1	3	6	15	
	28개월 이상	4	6	5	1	16	
제3국 체류기간	1년 이하	6	2	2	4	14	6.92
	1 ~ 3년	6	12	8	5	31	
	3년 이상	8	5	7	5	25	
동거형태	가족	13	9	9	7	38	14.11
	보호시설	5	3	8	6	22	
	혼자(무연고)	1	4	0	1	6	
	형제(부모없음)	1	3	0	0	4	

* $p < .05$

입국한 청소년들이 ‘주변화’를, 17~19세에 입국한 청소년들은 비교적 ‘동화’ 유형을, 14~16세의 청소년들은 ‘동화’와 ‘통합’ 유형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탈북 후 제 3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인 청소년들은 ‘동화’ 유형을, 1~3년인 청소년들은 ‘통합’ 유형을 그리고 3년 이상인 청소년들은 ‘동화’ 유형을 많이 보이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동거 형태로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살 때는 ‘동화’ 유형을, 쉼터와 기숙사 등 보호시설에 동료들과 여럿이 살 때에는 ‘분리’ 유형을 많이 보이지만, 홀로 살거나 형제하고만 살 때에는 ‘통합’ 유형을 비교적 많이 보였다.

한편, 교육 형태에 따르면 일반 공교육 기관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은 ‘주변화’를, 대안 학교에 다니는 경우 ‘분리’를, 하나원의 하나들 학교에 다니는 경우 ‘통합’을, 그리고 학원이나 야학 등에서 혼자 공부하는 경우는 ‘동화’ 혹은 ‘분리’ 유형을 더 많이 보였다. 입국 후 경과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입국 후 하나원 시절까지 4개월간 노출된 청소년들은 주로 ‘통합’과 ‘동화’ 유형을 보였으나 하나원을 나온 후 홀로 생활한 지 1년 정도 된 청소년들은 ‘분리’ 혹은 ‘주변화’ 유형을, 1년에서 2년 사이의 청소년들은 ‘동화’ 유형을, 그리고 2년 이상 경과한 청소년들은 ‘통합’ 유형을 더 많이 보였다.

탈북청소년 문화 적응 정체감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을 북한 문화 적응 정체감과 남한 문화 적응 정체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한 문화 적응 정체감 수준이 북한 문화 적응 정체감 수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 탈북 청소년 문화 적응 정체감 점수

	평균	표준편차
남한 문화 적응 정체감	61.22	12.39
북한 문화 적응 정체감	56.00	12.07
전 체	117.23	16.44

다음으로, 표 4는 각 변인별 탈북 청소년의 남한 문화 정체감과 북한 문화 정체감 수준을 차이 검증한 결과이다. 표 4에 나타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성별 및 제 3국의 체류 기간에서는 문화 적응 정체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 형태에 따라서는 문화 적응 정체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 공교육 기관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문화 정체감과 북한 문화 정체감 그리고 문화 적응 정체감 총 점수 세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하나원 시절에는 남한 문화 정체감이 높았으며, 대안학교와 학원 등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는 북한 문화 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생활을 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적응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다고 하겠다.

입국한 연령에 따라 남한 문화 정체감에 차이가 있었는데, 0~13세에 입국한 청소년들이 가장 낮았고, 17~19세에 입국한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다. 이는 17~19세 청소년들이 이미 인지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지각하고 새로운 남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입국 후 경과 기관에 따라서는 하나원 시절과 2년 이상 경과한 청소년들은 남한 문화 정체감이 높았고 1년에서 2년 된 청소년들은 낮았다. 반면 북한 문화 정체감에서 있어서는 하나원 시절에 가장 낮았지만 1년 경과한 청소년들의 경우 북한 문화 정체감 수준이

표 4. 변인별 탈북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 점수

변인	빈도 (명)	남한문화정체감		북한문화정체감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9 ~ 13세	6	54.33	5.82	55.83	9.67	110.17	14.30
	14 ~ 16세	14	59.07	15.31	55.14	14.77	114.21	24.31
	17 ~ 19세	29	6.32	11.85	55.52	11.53	119.13	14.01
	20세 이상	21	61.33	12.12	57.29	12.19	118.62	13.92
	<i>F</i>			1.13		.11		.70
성별	남	30	60.63	12.60	56.60	10.96	117.23	16.65
	여	40	62.03	12.29	55.20	13.57	117.23	16.45
	<i>F</i>			.22		.23		.00
교육형태	일반공교육	26	54.27	14.35	54.50	11.53	108.77	22.04
	대안학교	15	6.27	9.72	61.00	12.92	124.27	11.10
	하나원	16	70.38	7.23	50.13	13.53	120.50	9.05
	기타	13	61.54	7.59	60.46	5.77	120.00	6.39
	<i>F</i>			7.37***		3.11*		4.34**
입국나이	0 ~ 13세	9	49.44	13.32	52.56	15.91	102.00	24.11
	14 ~ 16세	18	61.28	13.11	55.56	10.19	116.83	18.97
	17 ~ 19세	28	64.54	9.53	58.29	11.53	112.82	8.71
	20세 이상	15	62.07	12.67	54.33	13.02	116.40	14.30
	<i>F</i>			3.81*		.67		4.18**
입국후 기간	4개월 이하	19	70.32	7.78	49.32	13.90	119.63	9.97
	5 ~ 16개월	20	57.30	12.68	59.65	11.70	116.95	20.69
	17 ~ 28개월	15	52.53	11.84	56.47	10.30	109.00	20.56
	29개월 이상	16	63.50	9.68	58.94	9.07	122.44	9.16
	<i>F</i>			9.06***		3.14*		2.01
체 3국 체류기간	1년 이하	14	60.29	13.94	56.00	12.82	116.29	24.48
	1 ~ 3년	31	62.94	12.65	54.10	12.22	117.03	15.32
	3년 이상	25	59.64	11.39	58.36	11.52	118.00	12.26
	<i>F</i>			.53		.86		.05
동거형태	가족	38	61.05	10.61	56.66	9.47	117.71	15.94
	보호시설	22	57.32	13.48	59.68	13.07	117.00	18.18
	혼자(무연고)	6	67.17	13.70	49.00	9.63	116.17	20.35
	형제(부모없음)	4	75.50	10.47	40.00	18.71	115.50	8.43
	<i>F</i>			3.25*		4.27**		.03

* $p < .05$, ** $p < .01$

표 5. 탈북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과 불안, 우울과의 상관 관계

	남한	북한	전체	불안	우울
남한 문화 정체감	1.00				
북한 문화 정체감	-1.00	1.00			
적응 전체	.68**	.66**	1.00		
불안	.33**	.24*	.42**	1.00	
우울	-.04	.27*	.17	.62**	1.00

* $p < .05$, ** $p < .01$

가장 높았다. 동거 형태로 살펴보면, 혼자 있거나 형제와 있을 때는 남한 문화 정체감 수준이 높았으나, 가족 혹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북한 문화 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표 5에는 각 문화 정체감과 불안, 우울과의 상관정도가 기술되어 있다. 전체 문화 적응 정체감과 불안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남한 문화 정체감과 불안은 정적 상관이, 북한 문화 정체감과는 불안과 우울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문화 적응 정체감 수준과 관계 없이 대부분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북한 문화 정체감을 유지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은 불안과 우울 수준이 동시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변인에 따라 문화 적응 과정 유형과 정체감 수준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청소년들은 성별, 연령, 입국 연령, 제 3국에서의 체류 기간, 동거 형태 그리고 입국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문화 적응 유형에

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남한 입국 후 국내 거주 기간에 따라서 문화 적응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원 시절인 4개월 이하의 탈북 청소년들은 ‘통합’과 ‘동화’를, 보호기간이 끝난 후 혼자 살기 시작한 후 1년 동안에는 ‘분리’를, 1~2년 사이에는 ‘주변화’를 사용하였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통합’ 유형이 증가하였다. 이는 Atkinson과 Morton(1998)의 MID 모델에서 지적한 대로 적응 기간에 따라 적응의 정도가 U형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셋째, 문화 적응 정체감 정도는 탈북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교육 형태, 입국 후 경과 기간, 동거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초, 중, 고등학교 등 공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문화 적응 정체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들은 남한 문화 정체감과 북한 문화 정체감 모두에서 낮은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문화 적응 유형에서 ‘주변화’ 유형을 보인다는 것과 관련되며, 그들의 적응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거 형태와 관련하여, 부모와 형제 등 비교적 안정적 가정 형태에서 살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은 ‘동화’ 유형을 많이 보였으나, 쉼터나 기숙사 등 탈북 청소년들만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북한 문화 정체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리’ 유형을 더 많이 보였다.

이미 Atkinson과 Morton(1998)의 MID 모델로 지적하였듯이 처음에는 새로 유입된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던 태도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심과 적대감까지 나타나지만,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 양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영역과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된 적응 정체감을 갖게 된다. 탈북 청소년들도 시간에 따른 문화 적응 유형이 같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원이라는 보호기간 시절에는 일단 새로운 문화의 이해와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화’ 유형이 필요할 것이고 이 또한 적응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이후의 1년 기간은 새로운 생활에서 현실의 냉혹함을 경험할 것이고, 아직까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전의 알고 있던 친구들과의 교류로 지지를 얻기 때문에 기존 문화의 정체감으로 회귀하는 ‘분리’ 유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함께 남한에 온 친구도 역시 적응의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돌봐주거나 좋은 정보를 주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적응자는 옛 친구에게서도 또 새로운 문화에게서도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두 문화 모두를 거부하는 ‘주변화’ 유형을 사용한다고 하겠다. 2년 정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활 경험에 의해 새로운 적응자는 점차 적응을 하게 되는 데 두 문화를 선택적으로 자신의 적응에 활용하는 ‘통합’ 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년이라는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이다. 귀국 후 1~2년 사이는 청소년에게 발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이므로 시간의 흐름과 경험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 개입으로 이들의 적응 유형과 정체감을 보다 적응에 유리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생활하기 시작하는 시기에서부터 정서적 지지망과 정보망을 경험하면 ‘분리’ 유형과 ‘주변화’ 유형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애란(2003)과 비교해볼 때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성인 탈북자의 경우 북한 문화 정체감은 1년 이상 3년 미만일 때 높다가 점점 낮아졌으며, 남한 문화 정체감은 비교적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청소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성인들은 남한 문화 정체감을 갖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 결과 중의 다른 하나는 일반 공교육 기관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들이 문화 적응 정체감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변화’ 유형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들이 새로운 문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화에서도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연구(박선경, 1999)에서 보고하고 있듯이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과 왕따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과 최근 한국의 학교 분위기와 문화를 고려할 때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다. 새로운 문화에 유입된 적응자가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지속 기간이 길어진다면 새로운 적응자 뿐만 아니라 주류 집단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들에게 적응 전략을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류 집단, 다시 말해서 남한 청소년들에게도 문화적 개방성과 유연성을 신장시키고 탈북 청소년을 수용하는 훈련이 미리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정체감 수준과 우울, 불안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문화 적응 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혹은 우울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 정체감수준이 높으면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처럼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은, 탈북 청소년의 경우 아직 2년 안팎의 체류기간 동안 적응 정체감이 정서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적응 정체감 척도를 개발하여 그들의 적응을 문화 정체감 변화 양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자료수집에 있어 다른 연구 집단과는 달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70명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적인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는 탈북 청소년 적응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남한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의 경우 남한에 거주한 지 1, 2년 경과한 이후 적응 과정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 공교육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적응 수준이 가장 떨어지고, 적응의 어려움이 가중된 결과를 감안할 때, 탈북 청소년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남한 청소년들에게 탈북 청소년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한 청소년들이 탈북 청소년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독고순 (2001). 탈북주민의 적응 유형연구. 민족발전연구, 5, 24-40. 중앙대학교.
- 박선경 (1999).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구본용 (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9(1), 189-225.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애란 (2003).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식생활행동에 관한 연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심리적 문화적응전략유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창호 (2000).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2002). 북한이탈주민용 문화적응전략 척도 개발.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2002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85-94.
- Ahn, H. (1999). *Juggling two worlds: Ethnic Identity of Korean-American College students*.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Atkinson, D. R., Morton, G., & Sue, D. W. (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San Francisco, CA: McGraw-Hill.
- Berry, J. W. (1970). Marginality, stress and identification in an acculturating Aboriginal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 239-252.
- Berry, J. W.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Halsted.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 (Eds.),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pp. 9-25). Boulder, CO: Westview.
- Berry, J. W. (1986). The acculturation process and

- Refugee behavior. In Williams, C. L., & Westermeyer, J. (Eds.) *Refugee mental Health in Resettlement Countries* (pp.25-37). Washington, D. C.: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Berry, J. W. (1991). Managing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for problem prevention. In *Mental Health Services for Refuge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IMH.
- Berry, J. W. (1998). Acculturative Stress. In Organista, P., Chun, K., & Marin, G. (Eds.). *Readings in Ethnic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sh, & Dennison (1991). The course of Sojourner adaptation: A new test of the U-curve hypothesis. *Human Organization*, 50(3), 283.
- Reynolds, C. R., & Kamphaus, R. W. (1992).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BASC): Manual*.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원 고 접 수 일 : 2004. 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4. 5. 3

계 재 결 정 일 : 2004. 5. 8



The Accultur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Adolescents Refugees

Myung-Ja Keum

Hae-Soo Kwon

Hi-Woo Lee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is study examined the acculturation type and the change process of North Korean adolescents refugees in South Korean society. The South Korean - North Korean Cultural Identity Scale was developed and used to identify the acculturation types of 70's North Korean adolescents refugees. Those who lived for 4 months under national protection have 'assimilation' - high on south korea directed identity dimension and low north Korea dimension - identity type. Adolescents living in South Korea more than 4 months but less than 16 months showed 'separation'(high North, low South) identity type. Adolescent more than 16 months less than 28 months showed low scores on both dimensions - 'marginalization' type. Finally the scores of adolescents living in South Korea more than 28 months were high on both dimensions - 'integration' type.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U" pattern proposed by the model(Atkinson, Morton, and Sue, 1998) and four strategy types proposed by Berry (1970, 2002).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may experience different patterns of acculturation based on the length of living in South Korea. This result suggests that different strategies of helping this population need to be developed.

Key Words : North Korean Adolescents refugees, acculturation process